문화특집 —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진단한다

필름들고 곧 상륙할 '사무라이'

다시금 재현되고 있는 일본의 대중문화 수입논쟁은 UR협상의 서비스부문 개방과 관련하여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고 있다.

어쩌보면 생맹줄과도 같다던 농축산물이 이렇다할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맥없이 개방된 것을 떠올리면, 소비의 차원인 대중문화의 개방이 뒤그리 대수로울 것이 될 수 있겠느냐는 자조섞인 말도 충분히 나올법하다.

이미 미국과 서유럽, 그리고 구 사회주의권의 영화나 음반을 포함한 대중문화가 비교적 자유롭게 유통되는 국내의 현실과, 형식적인 경차만 생략했을 뿐 일본의 대중문화가 벌써부터 우리의 피부 구석구석에 침투해 있는 상황에서 "일본만큼은"이라는 거부감은 그 근거나 타당성이 벌써부터 상실되고 있었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일본문화 수입에 대한 논쟁에서 우리는 기왕에 형성되어 있던 국민적 공감대를 방패로 삼으려 한다거나, 아니면 개방과 국제화라는 허울좋은 포장에 휘말려 문제의 핵심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UR의 예를다시 들어보자. UR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러 쌀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서비스분야의 개방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미국이 가장 역점을 두어 협상을 추진했던 분야가 헐리우드 영화로 상징되는 자국문화상품의 전세계적 석권이었다는 점은 EC가 농산물분야에서의 일정한 개방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부분을 지켜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UR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앞으로 외국자본에 대한 보호입이 외국문화를 수입, 향유할 수 없다는 것은 물론이고, 아울러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어떤 문화산업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이다.

선진문화의 흐름은 역사적으로도 검증된 사실이고 문화발전을 위해선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했지만 현실에서의 문화교류는 이미 문화 외적인 요소들이 교류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고 지배하는 상황에 이른듯하다. 일본의 대중문화 수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문화가 단순히 향유의 차원을 넘어 경제적으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면 개방여부의 찬, 반 양론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다가올 개방 이후 우리의 문화산업에 대한 반성과 자구책 논의가 더욱 시급하다.

90년대를 기점으로 양적인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국내의 문화산업은 인쇄매체에서 영상매체로의 지형변화라는 구조적인 변화와, 해를 거듭할수록 그 심화의 정도가 더해지는 대외종속, 그리고 문화산업의 영역에 대한 거시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종속의 심화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문화산업의 개방정도를 예상할때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문화산업으로서 영화산업의 예를 들어 보자. 작년한해 극장의 영화관람객은 5천여 만명을 넘어섰고, 매출액으로 보면 2천억원에 이르게 됐다. 여기다가 비디오 시장의 8천억원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영화를 매개로 하는 영상부문에서만 1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시장증가를 보이고 있다.

우리 영화시장의 고사상태는 충분히 예상된다.

우리의 문화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동차 산업에 퍼붓는 만큼의 경제적 지원과 정책적인 배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일본의 대중문화 수입에 대해 위기감을 굳이 숨기고자 하지 않는 것은 일본에 대한 해묵은 감정보다는 우리 문화의 현실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수십년간 문화내적인 경쟁력 강화노력이나 문화외적인 정책적, 경제적 배려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궁금하다.

◇일본 잡지를 보고있는 여학생.

그를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아직도 존재하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사전심의제도가 해소되어야 한다. 그간 문화계가 검열제도로 인해 상상력의 위축을 받아온 것을 상기한다면 온갖 미사여구로 채워진 문화정책은 화려하게 포장된 빈상자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가 93년도 한해에만 외국영화 상영에 따른 세금 3억5천만달러(한화 2천5백여억원)를 1백50여편의 자국영화제작 보조금으로 사용한 사례—우리의 경우 문화체육부의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 영상진흥금고 1백억원 조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체적인 재정보조도 함께 되어야 한다. 만 뿐인 문예진흥기금—그것도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편향된 지원이 대다수인—을 전면개편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에 대하여 우리는 주체적인 수용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문화는 박제된 우상이 아니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다. 더군다나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문화현상과 그에 걸맞게 자본의 거센 논리가 살아 숨쉬는 대중문화는 "된다, 안된다"의 비생산적인 논쟁을 비웃으며 저만치 앞서 달리고 있다.

우리가 칡을 뛰겨가며 불가를 외쳐온 일본의 대중문화는 단지 지녁 TV프로그램 몇가지를 보고 있으면 그대로 여과없이 전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순이고 자기 기만적인 논쟁이 또다시 재현되려 하고 있다. 그리고 각 언론매체마다 지엽말단적인 일본대중문화의 현상을 재탕, 삼탕함으로써 감정적인 충동질을 해대고 있다. 사실은 그들 스스로가 일본대중문화 수입의 선봉대이면서 말이다.

지난해 UR협상과정에서와 같은 어이없는 경우를 되풀이해선 곤란하다. 근거도 희박한 불가 입장이나 이제는 김영삼 정부의 상징이 되다시피한 "개방", "국제화"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대책없이 우리의 안방을 내주는 그런 한심한 작태가 두번 다시 재현되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는 논쟁의 뒤에 가려져 있는 국내 문화현실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 문화를 담당하는 주체들의 체질을 강화하고 정부가 자랑스럽게 내놓는 심적 위주의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의 고삐를 더욱 잡아당김으로써 지금과 같이 관심조차 끌지 못하는 찬반 논쟁을 현실적인 문화산업 육성과 적극적인 지원대책에 대한 논의로 현실화해야 한다.

대중문화의 종속은 필연적으로 경제의 종속을 불러올 뿐더러 심하게는 문화정서의 흡수도 배제할 수 없음을 인식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감정적인 거부감만을 표현하기보다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이 더욱 시급한 때라고 하겠다.

김 종 현
〈신방·4〉

단순 문화개방 넘어선 문화산업 위기
정부의 정책적·경제적 지원 뒷받침 돼야

게다가 내년에 CATV시장이 개막되면 영상물 수요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일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일본의 대중문화 수입이 두려운 이유는 영화산업의 위기감에서도 일정하게 관철된다. 실상 일본의 영화는 지난 시기 유수한 세계영화제를 휩쓸던 위력을 더이상 지니고 있지 못한 것만은 확실하다. 하지만 헐리우드의 콜롬비아 영화사를 매입한 소니의 한해 매출액이 단일 영화사로서 2조5천억원을 상회한다는 사실과, 현재도 50만 가정에서 위성방송을 통해 즐겨 시청되고 있다는 일본의 오락액션 영화가 비디오 시장에서 몰고올 파고만으로도 개방이 공식화 된 이후에 펼쳐질

◇일본 위성방송 수신기에 파묻힌 3·1절의 태극기.

영화평 쉰들러 리스트

'학살의 망각도 학살의 일부이다. 왜냐하면 학살의 망각은 또한 기억의 학살이고 사회적인 것의 학살이기 때문이다.'라는 보드리야르의 말처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폐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쉰들러 리스트'는 대학살의 잔인한 공포에 대항하기까지의 한 인간의 변신에 초점을 맞추어 완성된 스티븐 스필버그의 역작이다.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의 쉰들러는 1940년 이기적인 기회주의자로, 그리고 나찌당의 일원으로 폴란드에 와서 그의 꿈, 자본가로서의 야망을 펼치게 되나 자신의 눈앞에서 대대적인 유태인 학살이 이루어지자 그에 충격을 받아 자신의 많은 재산으로 자신이 고용했던 유태인들을 사서 좀더 안전한 곳으로 올겨 수용한다. 쉰들러의 명단에 실린 천백명만이 아우슈비츠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그에게 수용되었던 유태인들은 역사의 증인으로 살아 남았다.

'한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탈무드 글귀처럼 쉰들러의 인도주의적 행동과 그 의식의 변화는 우리 시대에 감동을 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영화의 작품성을 따져 보아도 테크닉의 귀재인 스필버그의 감각은 탁월하다. 현장감이 살아나는 강렬한 흑백화면, 주연급에서 조연급까지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 음악, 음향, 색채 등 영상언어가 거의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고 그 특유의 긴장감과 유머는 긴 상영시간을 조금도 지루하지 않게하는 힘이 있다. 흑백화면이기 때문에 더욱 선명한 부분적 컬러효과도 그것을 계산하고 정확한 효과를 낼 줄 아는 스필버그답게 깔끔하고 강렬하다. 학살의 현장에서 천진하게 걸어다니는 빨간옷을 입은 작은 소녀는 쉰들러가 협잡꾼에서 인도주의자로 전환하게 되는 내면을 표현하는 주요한 단서가 된다. 학살장면도 흑백필름이기에 더욱 효과가 충폭된다고 할 수 있는데 눈과 피, 선과 악, 피지배자와 지배자의 이항대립을 선연하게 보여준다.

역사의 증인 — 쉰들러 리스트 1100인
현장감 묻어난 흑백화면의 긴장감과 유머

그러나 언제나 스필버그의 영화에서 안타까운 것은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의 작품이 뛰어나고 명작의 요건을 두루 갖추었지만 정작 명작이 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할텐데 아마도 그것은 본질적인 그 무엇이 아닐까?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감동과 영화의 완성도마저 있다는 생각이 든다네." 그리하여 쉰들러는 유태인의 구제와 인간성의 회복을 이루었지만 스필버그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난제가 아닐 수 없다. 감독 스필버그의 경험은 오스카상의 획득으로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글은 사실 스필버그에게 있어 지금까지의 어떤 작품보다 훌륭한 작품을 가지고 '욕의 티'를 찾는 모양새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스필버그가 뛰어난 감독이기 때문에 그 티가 더욱 거슬리고 안타까운 것이다.

마 정 미
〈동문·자유기고가〉

문화원 탐방 자국문화 지킨 불란서의 자존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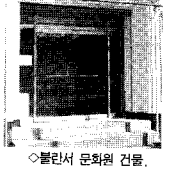
③불문화원

최근 UR문화개방에 우리문화계는 심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언론·대중·각계의 전문가가 힘을 모아 UR협상 중 문화분야에서 만큼은 끝내 개방하지 않기로 결정한 불란서의 '문화적 자존심'이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문화원 탐방 3번째로 '불란서 문화원'을 소개한다.

1968년 설립된 '주한 불란서 대사관 문화원'은 한·불 문화교류 협정 체결 이후 한국내 불란서 문화를 소개하고 양국의 문화를 교류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최근에는 미술·음악뿐만 아니라 문학에 있어서도 불란서를 중심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한국 예술인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주재한 다른 나라 문화원에 비해 시설이나 일반인의 호응도 면에서 좋은 불란서 문화원의 내·외적 활동 등 양국의 문화교류가 되고 있다.

문화관의 지하, '르느와르 실'서는 영어자막이 나오는 불란서 필름 영화를, 4층 '비디오실'서는 자막없이 불어로 상영되는 비디오 영화를 볼 수 있다. 한가지 주제를 2달동안 가지고 필름과 비디오 각각 8편의 영화를 2주 주기로 반복 상영하며 UIP직배의 헐리우드식 상업영화가 아닌 '예술'로 간주되는 불란서 일반 영화가 소개된다.

1층 현관 전시실은 열린 공간으로 불란서와 관계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누구나 이용을 신청 할 수 있으며 문화원측의 결정하에 전시할 수 있으며 대관료를 받지 않는다.



◇불란서 문화원 건물.

1층 '카페 비디오실'에서는 토시·4시에 최근 불란서 뉴스를, 그외의 시간에는 음악 실황공연 등의 비디오가 상연되며 2층 도서실에 소장된 각종 원서 9천여권과 음악·문학·시사등을 다루는 불란서 잡지 40여권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개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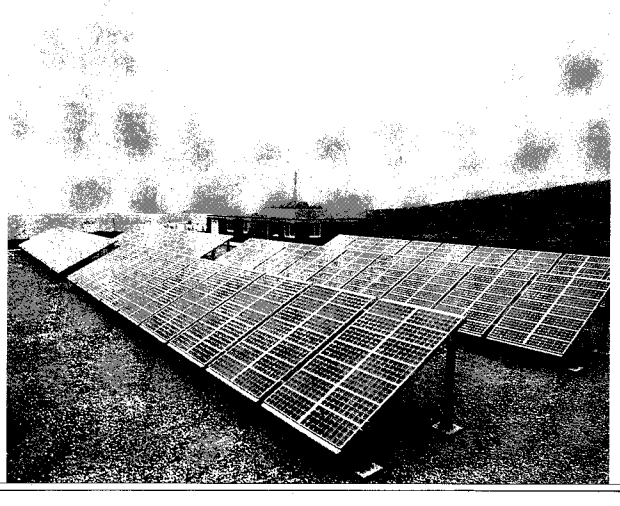
3, 4월중 관내 행사로는 △전시회='부브르, 성에서 박물관으로'(3월), '플로드 가프네르 연극사진전'(4월) △영화상영='르들르신'등의 정불영화 16편(매월 2시, 4시)이며 관외 행사는 △오페라=정명훈이 지휘하는 파리 국립 '바스티유'오페라단의 내한공연 '살로메'(4월12일~17일, 예술의 전당오페라하우스) △전시회=프랑스 공예전(4월22일~5월16일,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이다.

□문의전화 : 734-9768

(이유정 記者)

21세기 에너지-한국전력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NEW ENERGY

■마라도 태양광발전 시스템



"우주에는 무한대의 에너지가 존재한다?"

우주의 중심을 이루는 태양은 에너지 바로 그 자체입니다.
태양의 표면으로부터 방사되는 에너지는 약 3.8×10^{23}kW정도이며 이 가운데
지구상에 도달되는 에너지는 연간 약1.6×10^{18}kWh 로서 이는 세계 1차 에너지소비량의
약 15,000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 무한대로 존재하는 태양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없을까?

한국전력은 1961년 기술연구원을 설립하여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중의 한 프로젝트가 '태양광발전'에 대한 연구개발입니다.
태양광발전이란 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반도체인 태양전지를 이용한
무연료·무공해의 직접발전방식으로 한국전력에서는 도서 지역과 산간벽지 주민을 위하여,
이미 1991년 최남단 마라도에 30 kW, 1993년 충남 호도에 100kW급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건설하여 운전 중에 있으며, 주택및 대규모 전력공급용 태양광발전 시스템 실용화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최 한국전력 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팀은 이 무한대의 태양에너지를 활용하여
품질좋은 무공해 에너지를 개발, 국민문화생활과 국가산업발전의 초석이 되고자
21세기 태양광발전 시스템 (SPS : Solar Power Satellite) 연구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태양광 연구팀
책임연구원 : 엄영창
선임연구원 : 황인호
연 구 원 : 안교상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전력공사